

데스크시각



윤영기  
교육부장

강진군 체육회장이 공무원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 보성군 체육회장이 공무원에 대한 폭언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 강진·보성 체육 사태는 본질적으로 체육계의 자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드러난 외피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저 '완장 찢고 갑질하는 체육회장 개인의 행태'쯤으로 생각하고 넘어가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바로 자치단체와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 두 지역에서 일어난 사태는 자치단체와 체육회와의 갈등에서 출발했다는 공통본모가 있다. 강진체육회장은 군수와 마찬가지로 일정을 잡으면서 자신과 조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성체육회장도 군에서 지원을 약속한 예산 지원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빚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일탈을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 물론 당사자나 체육계의 반성이 먼저일 것이다. 그렇지만 자치단체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걸까. 과연 자치단체는 민선시대를 맞은 체육단체장과와의 건전한 협력 방안을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봤을까.

올해 민선 시대가 도래하면서 당달아 체육회장의 위상도 크게 달라졌다. 자치단체장 입맛에 따라 시군 체

민선 체육 시대에도 여전한 '완장'

육회장을 앉히고 체육회 운영을 좌우하던 시절의 체육회장이 아니다. 이는 정치와 체육의 분리라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것이며, 이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체육인들의 선거로 뽑힌 선출직 단체장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런 변화를 인정해야 하는 한 축은 자치단체다. 이제 서로 달라진 위상과 존재, 각기 몫을 인정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

하지만 이러한 민선 시대에 접어들어서도 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하라는 자치단체는 여전히 '갑'이다. 체육회가 구조적으로 자치단체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아야 하는 구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자치단체가 여전히 "재정을 틀어쥐면 체육단체를 주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이 든다. 강진과 보성 사태의 교훈은 새 시대에 걸맞은 체육회와 자치단체 간 위상 정립의 필요성이다. 이를 간과한다면 자치단체와 체육회 간 반복과 갈등은 언제든 또다시 되풀이 될 것이다.

폭력사태 지자체와 갈등 탓

최근 김재무 전남체육회장이 강진·보성 사태에 대해 사과했는데, 김 회장의 사과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런데 시군 체육회마다 독립된 단체로 책임과 권한이 보장돼 있다는 점에서 보면 사리에 맞지 않다. 그의 사과는 '이들을 통솔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의 행동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에서 사과를 해야 한다면 도체육회장이 아니라, 사태의 당사자여야 맞다. 구청장이 물의를 일으켰다고 시장이 사과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노파심이지만 도 체육회장의 사과와 대처 방안을 보면서 도체육회가 시·군체육회까지 거느리던 옛 관

선 시절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광역체육회가 시·군·구 체육회를 통폐하라는 퇴행적 발상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보다는 체육회 뒷전에서부터 비민주적인 행태를 찾아 근절하는 게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일일 것이다.

체육회 민주적 개편 있어야

광주시·전남도 체육회는 전적으로 단체장 중심 체제다. 어찌 보면 독선과 독재가 가능한 체제다. 체육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멤버 구성은 단체장의 전권이다. 선수·지도자에 대한 자격 심사나 포상은 물론 징계권까지 쥐고 있는 스포츠공정위도 마찬가지다. 실제 시도체육회는 규약(규정)에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회장 입맛에 맞지 않는, 쓴소리나 할 사람들을 선임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를 찾는 것은 연목구어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처럼 당연직 체육회장이던 시도지사가 빠져 나가고 민선시대가 됐지만, 그 운용 행태는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수백여 명이 지원되는 체육회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시군 체육회장이 '사교'를 쳐도 현재 구조상으로는 징계하거나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혀를 잘 일이 아니다. 단체장 멋대로 체육회를 운영해도 견제할 제동이나 안전장치가 없기는 시도 체육회도 마찬가지다. 체육계에 더 정교한 민주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penfoot@kwangju.co.kr

은편칼럼



송민석  
수필가·전 여천고 교장

오래전 일이다. 영국에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다. 귀족 제도의 존폐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폐지 여론을 기대했으나 압도적인 다수가 귀족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나온 것이다. 조사 당국은 머쓱해졌다. 근대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영국인들이 이처럼 봉건적인 귀족 제도에 애착을 갖는 것은 귀족들이 앞장서 자기희생으로써 사회 공동체를 지켜온 역사를 조상 대대로 경험했기 때문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프랑스어로 '귀족의 의무'를 뜻한다. 일반적으로는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해야 한다는 의미다. 로마가 2천 년의 역사를 가능하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다. 바로 로마인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였다. 로마의 귀족들은 사회적 기부·헌납·봉사 등의 일반적인 전통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즉각적으로 참전하는 것을 자신들의 의무이자 명예로 여겼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10년 전 전안함 피격 사건 당

국격을 높이는 자 누구인가?

시 비상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 지하 벙커에 모인 대통령, 국경원장, 감사원장, 국무총리, 여당 대표 등 모두 병역 면제자들이었다. 선진국 사회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부럽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 사회 지도층의 책임 불감증 탓일 것이다.

많은 특권을 갖고서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서 지도층을 자처하는 사람이 많은 우리 사회가 아닌가 한다. 나라의 최고위 지도층 인사들까지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병역 의무를 지르지 않고도 위정자의 자리에 오르는 나라에 기강이 제대로 설 수 있겠는가.

우리 정치는 대화가 실종되고 대립이 난무하는 후진적 정치 문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어령 교수는 국격을 높이려면 '우선은 우리 안의 '천격(賤格)'을 걷어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천격의 대표적인 것이 천박하고 저속한 말이다. 작은 허물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찌잡아 거친 말로 공격하는 건 인격의 천박함을 드러낼 뿐이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다. 코로나 이후 일상의 변화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품격 있는 정치가 아쉬운 요즘이다.

어디 정치인뿐만이냐. 사회에 대한 책임보다 부와 권력을 물려주고 더 많이 갖기 위한 재벌들의 병폐도 개혁할 때가 되었다. 카네기처럼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이 번 돈에 대한 세금이 정당하게 내는 게 부자의 도리가 아닌가. 세계 제일의 부자

로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낸 빌 게이츠는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여 세계인에게 감명을 준 바 있다.

부자라면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세태도 문제지만 절세(節稅)라는 명분으로 탈세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부 재벌들의 의식도 문제다. 우리 사회에 부자가 특별 관리 대상이 되는 것은 경주 최부잣집이나 유한양행을 창립한 유일환 박사와 같은 청부(淸富)가 드물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에 고급 아파트를 가진 사람 중에서도 "집값이 폭락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는 이전해야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 보수에는 그런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 학교는 자신이 출세를 하거나 자신만이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원하지 않는다. 주변을 위하고 사회나 나라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달려가 선두에 설 줄 아는 사람을 원한다." 보리스 존슨 현 총리를 비롯한 수많은 정관계 지도자를 배출한 영국 대표 명문 고등학교인 '이튼 스쿨' 학교장이 어느 해 졸업사에서 한 송별사 내용이다.

세월호 사건 때 팽목항으로 달려간 하루 평균 2000여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은 누구보다 귀한 행동으로 국격을 높인 분들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은 단지 일부 사회 지도층이나 재벌에게만 해당하는 용어가 아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고 배려하는 고귀한 정신은 개개인의 사소한 행동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한다.

기 고



서동근  
한국예술통합학교교육원 교수

2020년 이후 광주는 뷰티산업 진흥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광주시 뷰티산업 전담팀 신설을 통해 지역 내 고급 뷰티산업 자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차별화된 정책 개발로 '맛과 맛의 도시'를 완성해 찾아오는 광주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뷰티산업은 세계적 불황에도 웰빙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부합하여 국내외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이다. 인공지능(AI)과 광산업, 공기산업 등 신산업 간 융복합이 활발히 진행 중인 가운데 뷰티산업 분야의 우수한 기술은 한류 등에 힘입어 새로운 관광 수출 콘텐츠로서 성장 잠재력이 높다. 뷰티산업은 또한 다른 분야인 의료·관광·쇼핑 등의 사업과 시너지 효과가 크고, 고령화 시대 산업 구조의 다양화를 통해 광주 지역 내 우수한 뷰티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바탕으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뷰티 서비스를 포함한 융복합 산업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내수 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 분야인 것이다.

광주 뷰티산업 진흥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자

인체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관리하는 뷰티산업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뷰티 제조업으로 화장품·미용가전제품·뷰티용품 기기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국가 자격 제도가 운영되는 피부미용, 네일미용, 메이크업, 헤어미용 분야가 있다. 최근 소비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두피 모발 관리나 왁싱, 반영구 화장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도 이미 일반인들에게는 친숙하다. 세 번째는 연관 산업으로 스킨, 아로마 허브, LED 가전 뷰티용품, 메디컬, 문화 관광, 쇼핑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문화 콘텐츠 프로그램 등이 꼽힌다.

뷰티산업 분야의 최근 특징과 변화를 보면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령화 장수 시대가 열리면서 웰빙 지향과 감성 소비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와 결합하여 또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서의 잠재력이 크고 해외 시장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면서 언어가 다른 국가에서도 문화 차이를 넘어 충분히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또한 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서비스와 연계된 전략으로 고급화되는 추세다. 예를 들면 개인의 DNA 분석으로 맞춤형 화장품 제조를 통하여 즉석에서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뷰티 숍의 공기 질 관리를 통한 청정 공간과 세대와 계층에 적합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이다.

뷰티 서비스 국가 자격증만 봐도 네일 미용과 메이크업 자격증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다. 또한 한류 등에 힘입어 가까운 중국·베트남·캄보디아·인도·러시아 등 중앙아시아에서는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교육 서비스만으로도 유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

다.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미용 학사·석사·박사 과정까지 학제가 준비되어 있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유일하다.

광주 지역의 뷰티 미용 교육 환경을 보면 대학만 해도 11개의 기관과 30여 개의 미용전문학원과 교육원이 있으며, 인적 자원 역시 풍부하다. 다시 말하면 뷰티 미용 교육 중심 도시로도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일들이 잘 진행되려면 무엇보다 광주광역시의 운영 체계가 준비되어야 한다. 가장 '광주 뷰티산업 진흥 지원센터'를 설치해 급성장하는 국내외 뷰티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적 육성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연관 분야인 광산업·공기산업·디자인 산업과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단체·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광주가 가지고 있는 고급 인적 자원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우수한 교육 기관과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국제 학술 교류 및 화장품·성분·소재 등의 전시, 즉 마이스(MICE) 산업과 연계하여 광주형 뷰티 문화관광 광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해외 진출을 하고자 하는 뷰티산업 종사자들과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면 일자리 창출도 활발히 이뤄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광주만의 로컬 브랜드화 추진으로 영세성을 벗고 특성화를 통해 차별화를 꾀해야 한다. 지역의 다양한 뷰티 전문가들과 함께 발전적 토론을 통해 광주가 '달로벨 메디시티(Medi-City)'이자 뷰티산업의 거점으로 발돋움하길 바란다.

社說

교육청 납품 비리 관급계약 개선책 시급하다

경찰이 최근 적발한 전남도교육청의 '납품 비리'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입이 딱 벌어진다. 한두 명도 아니고 연루된 직원들만 57명인 데다, 이들이 브로커와 업자들로부터 뇌물과 골프 접대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받아 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전남 지역 학교 62곳의 다목적 강당이나 체육관에 28억 원 상당의 롤스크린을 설치하는 사업과 관련, 업체와 브로커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경찰 수사 결과, 롤스크린 설치 업체는 납품을 위해 브로커 10명에게 자그마치 13억 원을 건넸고 브로커들은 물품 납품 여부를 책임지는 담당 직원 로비를 위해 1억 원을 썼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8명이 1000만 원 가량을 받았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수사 기관 추적이 쉽게 가능한데도 그중 6명은 은행 계좌이체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런 대담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브로커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성이 떨어지는 공무원들에게도 선물을 건네는 등 접촉의 '관'을 이어갔다고 한다.

선물도 단순한 과일·수산물뿐만 아니라 와이셔츠 등 공무원 개인별 취향과 특성을 고려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에 몰린 공무원들만 45명이나 된다.

이처럼 정상적 물품 납품에 들어갈 비용이 브로커와 공무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감에 따라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부패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쉽게 계약을 따낸 업체 대표 등은 계약 조건과 다른, 낮은 사양의 롤스크린을 설치해 차익을 남겼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공무원들의 비리 사태를 보면 그동안 교육청이 모토로 내세웠던 '정렴'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진다. 전남도 교육청은 이제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고강도 대책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담당 공무원들의 재량에 의해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 비리를 낳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하부속히 관급 계약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은행·교도소발 코로나 확산 철저히 막아야

광주·전남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이후 한동안 주춤했던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다수가 이용하거나 단체 생활을 하는 은행과 교도소에서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면서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순천에서는 지난 주말 신한은행 연향점 직원 네 명과 직원 가족 두 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어 은행을 방문했던 50대 남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CCTV 확인 결과 직원과 고객 모두 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아크릴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상담을 했는데도 감염이 이루어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초 감염 경로가 특정되지 않은 데다 은행 직원과 그 가족에 이어 고객의 감염 사실까지 확인됐다는 사실이다.

재소자 2000명이 생활하는 광주교도소에서 직원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

았다. 그제 20대 직원 A씨와 지인 두 명이 확진자로 분류된 데 이어 A씨와 함께 야간 당직근무를 한 동료 직원도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A씨는 재소자 및 직접 대면하는 업무를 하지는 않았지만 50여 명의 직원들의 접촉이 이뤄져 이를 통한 재소자 감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두 곳 모두 지역 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감염 경로를 정확히 밝혀내는 게 급선무다. 최근의 상황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이후 '조용한 전파'를 통한 소규모 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는 데, 이 같은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거리 두기 단계는 다시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 이제 지자체는 방역 조치를 더욱 촘촘히 시행하고, 시민들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이번에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여성 부통령이 탄생했다. 카멀라 해리스. 어머니가 인도인이라는 점에서 그는 미국 사회에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남버' 자리 오르면서 그는 백인 남성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미국 정치계의 '우리 천장'을 뚫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승리 연설은 미국에서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연설의 하이라이트는 '여인 여성들'을 향해 꿈과 확

신보다 능력과 열정이 성공의 크기를 결정하면서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까지 있었다.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통하던 시절엔 계층 간 이동을 할 수 있는 사다리를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계층 간 이동 사다리가 사라지면서 남녀를 불문하고 '개천에서 용은 절대 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통용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로스쿨의 51%와 의대의 52%가 연 소득 인건액 1억2000만

'가능성의 나라'

원 이상의 고소득층 자녀인 것만 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빈부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만 마지막은 아닐 것'이라고 말한 대목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여성과 유색인종이라는 장벽을 깨고 부통령에 당선된 해리스는 '젊은 여성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전 세계 여성과 소녀들에게 그는 유리천장의 붕괴에 대한 확증을 주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이 '가능성의 국가'라는 점을 스스로 입증했다.

한국도 한때는 미국 못지않은 가능성의 나라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이 여러 통계에서 드러난다. 과거에는 출

/최원일 정치부 부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